

존 오스왈트 박사, 호세아, 세션 4, 호세아 5장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비디오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필사를 허가한 Francis Asbury Society(켄터키주 월모어)와 Oswalt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호세아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의 수업을 모두 보셨다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요. 지리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족이 둘, 둘로 갈라졌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베냐민은 북쪽으로 갔던 열 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꽤 초기에 유대 사람들은 확장하여 기본적으로 이곳의 베냐민 전체를 흡수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델은 바로 유다 국경 바로 너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아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금송아지는 물론 북쪽에 있었고, 빨간 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갈은 유다가 차지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안에 위치해 있었다.

기브아와 라마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언급하는 이 장소들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정기적으로 북쪽 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지파이며, 기본적으로는 그 중에서 지배지파이다. 아시리아인들이 마침내 점령하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에 관해 말할 때 단지 그 지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북쪽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습관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베스에이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악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에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에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첫 번째 구절에서 즉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사장과 왕가.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도 선지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언약을 존중해야 하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뭐라고요? 이끌고 가르치는 일, 그렇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 첫 번째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 그렇습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네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다음 여섯 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창조.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세계 종교에서 다소 독특합니다. 왜 다른 신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권력과 통제에 관한 모든 것. 신은 크게 쓰여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어야 했나요? 좀 더 큰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까? 정의, 자비, 친절.
그들은 국민의 우려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사람들을 더 돌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나는 신이다. 내 길에서 비켜라.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리더가 되었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을 풍요롭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태도를 특징으로 합니까? 자기 봉사. 어떤 태도가 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맙소사. 그때 왜 왔나요? 나는 봉사하고 내 생명을 바치러 왔습니다. 맙소사.

180도 다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하라 왕의 집에 들으라 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너희는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었느니라.

미스바는 아마도 두 개의 미스바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기 분명합니다.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다볼 산은 변형의 산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동사를 주목 하고 2절로 가십시오.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살.

타보르, 그게 뭐야? 그물, 올무. 예. 내가 읽은 한 작가는 그들의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구렁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탐욕스럽게 가두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모든 것을 아노니 이스라엘이 내게 숨겨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오히려 그들이 공개적으로 야훼를 숭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치 신이 몰랐던 것처럼 그들의 우상, 주술적 의식 등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아, 네가 이제 매춘 행위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 왜 매춘이 아니라 간음인가? 우리는 이전에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결혼했습니다. 왜 그는 그들을 간음죄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들을 매춘 혐의로 비난합니까? 차이점이 뭐야? 좋아요, 그들은 그들에게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매춘과 간음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매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 간음에는 적어도 관계의 요소,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매춘, 제로.

매춘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성매매를 올바르게 한다면 성매매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 것은 아이입니다.

생산적인 것도 없고, 건강한 것도 없고, 관계적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나는 매춘부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오히려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존스지만 그래야 합니다. 존은 단지 훔친 즐거움을 원할 뿐입니다.

매춘부는 현금을 원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거래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아, 네가 이제 매춘 행위를 하였느니라. 당신의 종교는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런 종류의 종교는 당신의 현금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최근에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음행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8절을 찾아보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 부모 곧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요,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품은 세대 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춘의 정신이 원죄를 정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더 이상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선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뭐야?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이며 매춘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실함에 반대되는 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에서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실제 단어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매춘의 영은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상한 점. 문제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나요? 아뇨. 그리고 쿠키가 입 전체에 묻어있어요.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진실은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 진실은 나에게 도전한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매춘의 정신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도전할 진실은 없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중국인 친구 Raza Rukh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매춘의 정신으로 그 행위가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더럽혀지면 더러운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 매춘으로 그들도 국가였고 우리이기도 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돈이든 사람이든 다른 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응, 응. 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조금 풀어보세요. 음란한 정신이 있으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사실이고 당신은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맞서서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당신은 거짓된 삶을 선택했고 결코 거짓이 아닌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인가요? 사랑.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Bonnie Lashbrook의 메일링 리스트에 여러분 중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Bonnie Lashbrook이 메일링 리스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4세에서 8세 사이의 사랑에 대한 정의. 그들은 훌륭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한 게 마음에 든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고 여전히 서로를 좋아하는 작은 늙은이와 작은 늙은 여자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갇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풀려질 때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정신이 나의 삶과 행동을 표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길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따라주시고 나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 삶이 성령의 흔적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그는 그들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만함과 매춘의 정신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좋아요,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당신은 당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다. 나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노력을 통해 내 방식대로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료되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성경에 대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중 하나는 읽을 줄 아는 다섯 살짜리 아이가 기본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고 평생을 그것을 공부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도착. 저는 창세기 3장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정의하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요, 내 필요 사항을 정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손을 잡고 앉아서 '하나님, 그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수동성을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싶나요? 그 사람은 우리의 능력을 이용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상황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단순히 앞서 달리고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 능력과 상황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사라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아, 하갈을 통해서 하자. 아니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체로는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한 일이고 하느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않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는 기적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남긴 댓글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으며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는 99세 할머니가 임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음행의 영.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의 필요를 내 방식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 다 유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걸려 넘어진다. 이 장에는 유다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다섯 번. 다섯 번.

유다는 이스라엘과 결합됩니다. 호세아는 종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묘사되는데, 나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유다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내 말은, 그들에겐 황금 황소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 그 책들은 이스라엘만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10절,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으니라. 12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은 것 같으니이다.

에브라임은 자기의 병을 보고 유다는 그 아픈 것을 보았느니라.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겠고 유다에게는 큰 사자 같으리로다. 왜 그는 이 비난에 유다를 포함시켰는가? 뭐라고요? 좋아요,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똑같은 잘못된 생각, 똑같은 매춘 아이디어에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스라엘에서 식물로 싹이 트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씨앗이 유다 땅에도 심어졌습니다. 저기에있어. 그리고 호세아는 영감을 받아 그 성장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가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우리도 그리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을 두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형이라고 부르고 유다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맏소사, 결국에는 여동생이 언니보다 앞섰다고 하더군요.

이럴 수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질문은, 내 삶에 씨앗이 심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아직 안 뒀네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그 사람을 아나요? 아니면 사실 내가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분의 선물을 마치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

우상 숭배자가 되기 위해 옷장에 작은 조각상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선물을 원해요. 주는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물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십시오. 자, 다음 구절이 너무 신기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긴 밤이었을 것 같아요. 맵소사,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이것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이삭과 너 사이의 선택이라면 나는 이삭을 택하겠다. 응.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원했습니다. 여기는 좀 조용해요.

그러면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갈 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찾으려고.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예.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이는 진정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과 실제로 추구하는 것 사이의 질문입니다.

면도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시장 조작.

네,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 나는 야훼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바알을 숭배하러 갑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행운을 빕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분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카렌에게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썄, 다른 여자의 침대에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다야? 아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라기가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더 이상 배반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혼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그것은 당신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분열이 스며들도록 허용하면 여기에 다시 영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녀에게 완전히 진실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불충실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주님께 진실합니다. 나는 항상 교회에 간다. 나는 주님께 진실합니다.

나는 내 차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하다...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그분의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께 불충실합니다. 그들은 사생아를 낳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생아를 낳을 수 있습니까? 타협. 좋아요.

종교의 모습. 바울이 말했듯이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뭐야? 응? 응? 좋아요.

돈? 그것은 겉모습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일종의 종교일 뿐입니다. 위조 물건. 예.

예. 아이입니다. 살아있지만 불법입니다.

그들이 초하루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발을 삼키실 것이라 이스라엘 남부 국경 바로 너머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라. 유다 국경 바로 아래에 있는 라마의 뿔입니다.

국경 바로 너머 베엘 베에이본에서 전투의 함성을 높이라. 계속하세요, 벤자민. 그들은 축제를 좋아합니다.

매 7일, 안식일. 4주마다 초승달, 유월절, 첫 열매, 나팔, 장막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망명 후입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곳에서 돼지를 숭배하고 에스터를 위해 부림절을 숭배한 후 성전을 재헌납했을 때 기념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누카와 부림절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제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이교적 이해의 차이이다. 이교도의 이해는 의식이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왜 천국에 가는가? 왜냐하면 나는 존 웨슬리의 지시에 따라 매주 성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의식은 관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글쎄, 그것이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의식은 잊어 버리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이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 몸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현실에 대해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관계가 최우선이며 의식은 이를 반영합니다.

여기서는 의식이 먼저이고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제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제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이사야서 첫 장을 일요일 아침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하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많은 제물이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시니라 나에게는 번제물과 숫양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넉넉합니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앞에 나타나려고 올 때에 누가 네게 이런 일, 내 뜰을 짓밟는 일을 요구하였느냐? 그러면 예배가 잘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 여기로 들어오라고 했나요? 무의미한 제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 향을 가증히 여기느니라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를 나는 건딜 수 없느니라.

죄악과 엄숙한 집회. 너희의 초하루 절기와 너희가 정한 절기를 내가 온 마음으로 미워하노라 그것들은 나에게 부담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가 지쳤습니다. 어쨌든 그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문제는 내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식을 기뻐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10절. 그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응.

그런데 그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홍수. 나는 홍수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12절에서 그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나는 좀이 되어 썩을 것이다.

14절에서 그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사자. 오 하느님, 저는 정말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왜 홍수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썩어가는 걸까요? 왜 그는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비참한 가운데서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은 나를 진지하게 찾을 것이다. 이제 하단의 빈 연습문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그 작은 공백 안에는 두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시 채울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하였으니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당신을 제거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사자처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찢어놓았을 때, 내 의도는 당신이 '맙소사,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세 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머는 노예 블록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인은 "내가 무엇을 입찰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10달러? 5달러? \$1.50? 그러자 군중 중 누군가가 30달러라고 말했습니다. 30달러! 그 미친 사람은 누구였나요?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춘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전적으로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죽음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당신을 우상, 천상의 슬롯머신으로 대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이생에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